뽑아 읽는 ≪맹자≫ 강독 / 제3강 고대(古代)의 재해석과 왕도정치(王道政治)」

○ 我非堯舜之道, 不敢以陳於王前.(≪孟子.公孫丑下≫)

【해석】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임금 앞에서 진술하지 않는다.
(≪맹자·공손추하≫ 중에서)

○ 孟子曰:「由堯舜至於湯, 五百有餘歲, 若禹、皐陶, 則見而知之, 若湯, 則聞而知之. 由湯至於文王, 五百有餘歲, 若伊尹、萊朱, 則見而知之, 若文王, 則聞而知之. 由文王至於孔子, 五百有餘歲, 若太公望、散宜生, 則見而知之, 若孔子, 則聞而知之. 由孔子而來至於今, 百有餘歲, 去聖人之世若此其未遠也, 近聖人之居若此其甚也, 然而無有乎爾, 則亦無有乎爾.」(≪孟子.盡心下≫)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요순(堯舜)으로부터 탕(湯)에 이르기까지가 오백여 년이라, 우(禹)임금이나 고요(皐陶)의 경우에는 보고 알았지만 탕(湯)의 경우에는 듣고 알았다. 탕(湯)으로부터 문왕(文王)에 이르기까지가 오백여 년이라, 이윤(伊尹)이나 내주(萊朱)의 경우에는 보고 알았지만 문왕(文王)의 경우에는 듣고 알았다. 문왕(文王)으로부터 공자(孔子)에 이르기까지가 오백여 년이라, 태공망(太公望)이나 산의생(散宜生)의 경우에는 보고 알았지만 공자(孔子)의 경우에는 듣고 알았다. 공자(孔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가 백여 년이니 성인(聖人)과의 시간적 거리가 멀지 않고 성인(聖人)이 사셨던 곳과 이렇게도 가까운데, 그런데도 아무 것도 없다면
(≪맹자·≫ 중에서)

○ 君子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也. 乃若所憂則有之, 舜, 人也, 我, 亦人也. 舜爲法於天下, 可傳於後世, 我由未免爲鄕人也, 是則可憂也. 憂之如何? 如舜而已矣. 若夫君子所患則亡矣. 非仁無爲也, 非禮無行也. 如有一朝之患, 則君子不患矣.」(≪孟子.離婁下≫)

【해석】
군자(君子)는 종신토록 지녀야 할 근심은 있어도 하루아침의 걱정은 없다. 종신토록 지녀야 할 근심이란, '순(舜)임금도 사람이고 나 또한 사람인데, 순임금은 천하에 법이 된 것은 물론 후세에까지 전해지는 분이 되셨거늘, 나는 시골사람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는

근심할 만한 것이다. 근심한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순임금처럼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군자가 걱정해야 할 것은 없다. 인(仁)이 아니면 하지 않고 예(禮)가 아니면 행치 않으니, 설령 하루아침의 걱정거리가 있다 해도 군자는 걱정하지 않는다.
(≪맹자·이루하≫ 중에서)

○ 孟子曰:「舜之居深山之中, 與木石居, 與鹿豕遊, 其所以異於深山之野人者幾希, 及其聞一善言, 見一善行, 若決江河, 沛然莫之能禦也.」(≪孟子.盡心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순(舜)임금께서 깊은 산속에서 사실 때 나무나(木) 돌(石)과 더불어 지내고 사슴(鹿)이나 돼지(豕)와 더불어 뛰어노셨으니 깊은 산속 들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시다가 좋은 말씀 하나를 듣거나 훌륭한 행실 하나를 보게 되면서 마치 큰 강물이 터진 것 같아서 그 기세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맹자·진심하≫ 중에서)

○ 桃應問曰:「舜爲天子, 皐陶爲士, 瞽瞍殺人, 則如之何?」孟子曰:「執之而已矣.」「然則舜不禁與?」曰:「夫舜惡得而禁之? 夫有所受之也.」「然則舜如之何? 」曰:「舜視棄天下猶棄敝蹝也. 竊負而逃, 遵海濱而處, 終身訢然, 樂而忘天下. 」
(≪孟子.盡心上≫)

【해석】
도응(桃應)이 물었다. "순(舜)임금이 천자이고 고요(皐陶)가 판관일 때 고수(瞽瞍: 순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맹자(孟子)가 말했다.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도응) "그렇다면 순임금은 금하지 않았을까요?"
(맹자) "순임금이 어떻게 금할 수 있겠느냐? 그가 판관으로서 부여받은 책임이 있는데."
(도응) "그렇다면 순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맹자) "순임금은 천하 버리는 것을 떨어진 짚신 버리는 것처럼 하시나니,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를 업고 도망쳐 어느 바닷가에 살면서 종신토록 기뻐하며 천하는 잊어버리셨을 것이다."
(≪맹자·진심상≫ 중에서)

○ 孟子曰:「舜發於畎畝之中, 傅說擧於版築之間, 膠鬲擧於魚鹽之中, 管夷吾擧於士, 孫叔敖擧於海, 百里奚擧於市.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

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孟子.告子下≫)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순(舜)임금은 밭 가운데서 등용되셨고, 부열(傅說)은 성을 쌓는 노역장에서 등용되었고, 교격(膠鬲)은 생선과 소금을 팔던 시장에서 등용되었고, 관이오(管夷吾)는 옥에 갇혀 있다가 등용되었고, 손숙오(孫叔敖)는 바닷가에서 등용되었고, 백리해(百里奚)는 저잣거리에서 등용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누군가에게 큰 소임을 내리시려면 반드시 그에 앞서 심지(心志)를 괴롭게 하고 근골(筋骨)을 힘들게 하며 신체를 굶주리고 궁핍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하시나니, 이는 마음을 동요시키고 성질은 인내케 하여 그 능치 못한 바를 증익시키려는 것이다."

(≪맹자·고자하≫ 중에서)

○ 禹、稷當平世, 三過其門而不入, 孔子賢之. 顔子當難世, 居於陋巷, 一簞食, 一瓢飮, 人不堪其憂, 顔子不改其樂, 孔子賢之. 孟子曰:「禹、稷 顔回同道. 禹思天下有溺者, 由己溺之也, 稷思天下有餓者, 由己餓之也, 是以如是其急也. 禹、稷、顔子易地則皆然.」(≪孟子.離婁下≫)

【해석】
우(禹)와 직(稷)은 평세(平世)를 당하여 세 번 자기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으시니 공자(孔子)께서 '어질다' 하셨고, 안자(顔子)는 난세(難世)를 당하여 비좁은 골목에 살면서 대그릇 하나의 먹을 것과 표주박 하나의 마실 것으로 지낼 때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했지만 안자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공자께서 '어질다' 하셨다.
맹자(孟子)가 말했다. "우(禹)와 직(稷)과 안자(顔子)가 가신 길은 같다. 우(禹)는 천하에 물에 빠진 이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빠뜨린 것처럼 생각하셨고, 직(稷)은 천하에 굶주린 이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굶긴 것처럼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급히 다니셨던 것이다. 우(禹)와 직(稷)과 안자(顔子)가 상황을 바꾸었다면 모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맹자·이루하≫ 중에서)

○ 萬章曰:「堯以天下與舜, 有諸?」孟子曰:「否, 天子不能以天下與人.」「然則舜有天下也, 孰與之?」曰:「天與之.」「天與之者, 諄諄然命之乎?」曰:「否, 天

不言, 以行與事示之而已矣.」曰:「以行與事示之者, 如之何?」曰:「天子能薦人於天, 不能使天與之天下, 諸侯能薦人於天子, 不能使天子與之諸侯, 大夫能薦人於諸侯, 不能使諸侯與之大夫. 昔者, 堯薦舜於天, 而天受之, 暴之於民, 而民受之, 故曰: 天不言, 以行與事示之而已矣. ... 舜相堯二十有八載, 非人之所能爲也, 天也. 堯崩, 三年之喪畢, 舜避堯之子於南河之南, 天下諸侯朝覲者, 不之堯之子而之舜, 訟獄者, 不之堯之子而之舜, 謳歌者, 不謳歌堯之子而謳歌舜, 故曰: 天也.」(≪孟子.萬章上≫)

【해석】
만장(萬章)이 말했다. "요(堯)임금이 순(舜)임금에게 천하를 주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맹자(孟子)가 말했다. "아니다. 천자(天子)라 해도 천하를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다."
(만장) "그렇다면 순임금이 천하를 소유한 것은 누가 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맹자) "하늘이 주신 것이다."
(만장) "하늘이 주셨다면, 그렇게 하라고 조곤조곤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까?"
(맹자) "아니다. 하늘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행적과 사건으로 보여주실 뿐이다."
(만장) "행적과 사건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자) "천자는 하늘에 누군가를 천거할 수는 있어도, 하늘로 하여금 그에게 천하를 주 '명(命)'이라고 한다.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唐)과 우(虞)는 선양(禪讓)을 하고, 하(夏)·은(殷)·주(周)는 계승을 하였으나 그 의리는 동일하다'라고 하셨다."
(≪맹자·만장상≫ 중에서)

○ 萬章問曰:「人有言, 伊尹以割烹要湯, 有諸?」孟子曰:「否, 不然, 伊尹耕於有莘之野, 而樂堯舜之道焉. 非其義也, 非其道也, 祿之以天下, 弗顧也, 繫馬千駟, 弗視也. 非其義也, 非其道也, 一介不以與人, 一介不以取諸人. 湯使人以幣聘之, 囂囂然曰: 我何以湯之聘幣爲哉? 我豈若處畎畝之中, 由是以樂堯舜之道哉? 湯三使往聘之, 旣而幡然改曰: 與我處畎畝之中, 由是以樂堯舜之道, 吾豈若使是君爲堯舜之君哉? 吾豈若使是民爲堯舜之民哉? 吾豈若於吾身親見之哉? 天之生此民也,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也. 予, 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斯道覺斯民也. 非予覺之, 而誰也? 思天下之民匹夫匹婦有不被堯舜之澤者, 若己推而內之溝中. 其自任以天下之重如此, 故就湯而說之以伐夏救民. 吾未聞枉己而正人者也, 況辱己以正天下者乎? 聖人之行不同也. 或遠, 或近, 或去, 或不去, 歸潔其身而已矣.(≪孟子.萬章上≫) 」

【해석】
만장(萬章)이 물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윤(伊尹)은 훌륭한 요리솜씨로 탕(湯)임금의 환심을 샀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맹자(孟子)가 말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윤(伊尹)이 유신(有莘)의 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요순(堯舜)의 도를 즐겼다. 그리하여 의(義)로운 것이 아니거나 도(道)가 아니면 천하를 녹으로 준다 해도 돌아보지 않았고, 4천 마리의 말을 집 앞에 매어놓아도 쳐다도 보지 않았다. 의로운 것이 아니거나 도가 아니면 단 한 개도 남에게 주거나 남에게서 받지 않았다. 탕(湯)임금이 사람을 보내 폐백으로 초빙하였으나, 도도하게 말했다. '내 어찌 탕(湯)의 폐백을 받고 가겠는가? 밭두둑에 살면서 요순의 도를 질기는 것만 하겠는가?' 탕(湯)임금이 세 번이나 사람을 보내 초빙하자, 이윽고 마음을 고쳐먹고 말했다. '내가 밭두둑에 살면서 요순의 도를 즐기는 것이 어찌 이 임금을 요순과 같은 임금으로 만드는 것만 하겠으며, 이 백성을 요순의 백성과 같게 만드는 것만 하겠으며, 내가 그것을 직접 보는 것만 하겠는가? 하늘이 이 땅에 백성을 내셨을 때, 먼저 깨달은 이로 하여금 나중에 깨달을 이를 깨닫게 하셨다. 나는 하늘 백성 중에 먼저 깨달은 자이니, 내 장차 이 도로써 이 백성을 깨닫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한단 말인가?' 천하의 백성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요순의 은택을 입지 못한 이가 있다면 마치 자신이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가 스스로 천하의 막중한 책임을 자임함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탕(湯)임금에게 나아가 하(夏)나라를 치고 백성을 구원하도록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을 굽게 해서 남을 바르게 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자신을 욕되게 하여 천하를 바르게 하는 것이겠느냐? 성인(聖人)의 행적은 같지 않다. 어떨 땐 멀기도 하고, 어떨 땐 가깝기도 하며, 어떨 땐 떠나기도 하고, 어떨 땐 떠나지 않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깨끗이 하는 데로 귀결된다."
(≪맹자·만장상≫ 중에서)

○ 孔子曰: 大哉堯之爲君! 惟天爲大, 惟堯則之, 蕩蕩乎民無能名焉! 君哉舜也! 巍巍乎有天下而不與焉! (≪孟子.滕文公上≫)

【해석】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위대하도다, 요(堯)의 임금다움이여! 오직 하늘만이 위대하거늘 요임금께서 본받으시니 그 한량없음을 백성들이 뭐라 표현할 수 없도다. 임금답도다, 순(舜)임금이시여! 높디높게 천하를 소유하였으면서도 이를 의식하지 않으셨도다."
(≪맹자·등문공상≫ 중에서)

○ 孟子曰:「舜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 東夷之人也. 文王生於岐周, 卒

於畢郢, 西夷之人也. 地之相去也, 千有餘里, 世之相後也, 千有餘歲. 得志行乎中國, 若合符節, 先聖後聖, 其揆一也.」(≪孟子.離婁下≫)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순(舜)임금은 제풍(諸馮)에서 태어나셔서 부하(負夏)로 옮겨 사시다가 명조(鳴條)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이(東夷) 사람이다. 문왕(文王)은 기주(岐周)에서 태어나셔서 필영(畢郢)에서 돌아가셨으니 서이(西夷) 사람이다. 지역적 거리는 천리가 넘고 시간적 차이는 천년이 넘지만, 자신의 뜻을 중국에 펼친 것은 부절(符節)을 합해 놓은 듯하니, 선성(先聖)과 후성(後聖)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다."
(≪맹자·이루하≫ 중에서)

○ 孟子曰:「離婁之明、公輸子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圓. 師曠之聰, 不以六律, 不能正五音. 堯舜之道, 不以仁政, 不能平治天下. 今有仁心仁聞而民不被其澤, 不可法於後世者, 不行先王之道也. ... 故曰: 爲高必因丘陵, 爲下必因川澤. 爲政不因先王之道, 可謂智乎? 是以惟仁者宜在高位. 不仁而在高位, 是播其惡於衆也.」(≪孟子.離婁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이루(離婁)의 밝은 눈과 공수자(公輸子)의 손재주를 갖고 있어도 컴퍼스[規]와 곱자[矩]를 사용하지 않으면 네모와 동그라미를 완성할 수 없고, 사광(師曠)의 밝은 귀를 갖고 있어도 육률(六律)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음(五音)을 바르게 할 수 없고, 요순(堯舜)의 도를 갖고 있어도 인정(仁政)을 사용하지 않으면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릴 수 없다. 인(仁)한 마음과 인(仁)한 명성이 있음에도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해 후세에 본이 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선왕(先王)의 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높아지려면 반드시 언덕을 이용해야 하고, 낮아지려면 반드시 냇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면서 선왕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롭다 하겠는가? 이러므로 오직 인(仁)한 자만이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하나니, 인(仁)하지 않으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악(惡)을 퍼뜨리는 것이다.

(≪맹자·이루상≫ 중에서)

○ 孟子曰:「規矩, 方員之至也, 聖人, 人倫之至也. 欲爲君, 盡君道, 欲爲臣, 盡臣道. 二者皆法堯舜而已矣. 不以舜之所以事堯事君, 不敬其君者也, 不以堯之

所以治民治民, 賊其民者也. 孔子曰:　道二, 仁與不仁而已矣.　」(≪孟子.離婁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컴퍼스[規]와 곱자[矩]는 네모와 동그라미의 지극함이요, 성인(聖人)은 인륜(人倫)의 지극함이다. 임금이 되고자 한다면 임금의 도를 다해야 하고, 신하가 되고자 한다면 신하의 도를 다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을 본받아야 한다. 순임금이 요임금을 섬겼던 것처럼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요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던 것처럼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공자(孔子)께서는 '길은 인(仁)과 불인(不仁) 두 가지 뿐' 이라고 말씀하셨다."
(≪맹자·이루상≫ 중에서)

○ 孟子曰:「三代之得天下也以仁, 其失天下也以不仁. 國之所以廢興存亡者亦然. 天子不仁, 不保四海, 諸侯不仁, 不保社稷, 卿大夫不仁, 不保宗廟, 士庶人不仁, 不保四體. 今惡死亡而樂不仁, 是猶惡醉而强酒.」(≪孟子.離婁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삼대(三代)가 천하를 얻은 것은 인(仁)때문이었고, 천하를 잃은 것은 불인(不仁)때문이었다. 한 나라가 쇠하고 흥하는 것이나 존속되고 멸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천자(天子)가 불인하면 사해(四海)를 보전하지 못하고, 제후(諸侯)가 불인하면 사직(社稷)을 보전하지 못하고, 경(卿)·대부(大夫)가 불인하면 종묘(宗廟)를 보전하지 못하고, 사(士)·서인(庶人)이 불인하면 사체(四體)를 보전하지 못한다. 지금 사망(死亡)을 싫어하면서도 불인을 즐긴다면, 이는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맹자·이루상≫ 중에서)
○ 孟子曰:「人皆有所不忍, 達之於其所忍, 仁也. 人皆有所不爲, 達之於其所爲, 義也. 人能充無欲害人之心, 而仁不可勝用也, 人能充無穿踰之心, 而義不可勝用也, 人能充無受爾汝之實, 無所往而不爲義也.」(≪孟子.盡心下≫)

【해석】
맹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차마 못하는 바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차마 하는 데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인(仁)이다. 사람들은 모두 하지 않는 바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하는 바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의(義)이다. 사람이 남을 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뽑아 읽는

마음을 확충해나갈 수 있다면 인(仁)을 이루다 쓰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남의 집 담을 뚫거나 넘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충해나갈 수 있다면 의(義)를 이루다 쓰지 못할 것이다."
(≪맹자·진심하≫ 중에서)

○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可運於掌上.」(≪孟子.公孫丑上≫)

【해석】
맹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남에게 차마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선왕(先王)들도 남에게 차마 못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남에게 차마 못하는 정치를 하셨던 것이다. 남에게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차마 못하는 정치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서 굴릴 수 있을 것이다.
(≪맹자·공손추상≫ 중에서)

○ 孟子曰:「以力假仁者覇, 覇必有大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湯以七十里, 文王以百里. 以力服人者, 非心服也, 力不贍也.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如七十子之服孔子也.」(≪孟子.公孫丑上≫)

【해석】
맹자가 말했다. "힘[力]으로 인(仁)을 빌리는 것이 패도[覇]이니, 패도는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있어야 한다. 덕(德)으로 인(仁)을 행하는 것이 왕도[王]이니, 왕도는 강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탕(湯)왕은 70리, 문왕(文王)은 100리로 하셨다. 힘으로 누군가를 복종시키려 들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복종한다. 덕으로 누군가를 복종시키려 들면,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孔子)께 복종한 것처럼,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한다."
(≪맹자·공손추상≫ 중에서)

○ 孟子曰:「五覇者, 三王之罪人也, 今之諸侯, 五覇之罪人也,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 天子適諸侯曰巡狩, 諸侯朝於天子曰述職. 春省耕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給. ... 五覇, 桓公爲盛. 葵丘之會, 諸侯束牲載書而不歃血. 初命曰: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 再命曰: 尊賢育才, 以彰有德. 三命曰: 敬老慈幼, 無忘賓旅. 四命曰: 士無世官, 官事無攝, 取士必得, 無專殺大夫. 五命曰: 無曲防, 無遏糴, 無有封而不告. 曰: 凡我同盟之人, 旣盟之後, 言歸于好. 今

之諸侯皆犯此五禁, 故曰: 今之諸侯, 五覇之罪人也. 長君之惡其罪小, 逢君之惡其罪大. 今之大夫皆逢君之惡, 故曰: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孟子. 告子下≫)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오패(五覇)는 삼왕(三王)의 죄인이고, 오늘날의 제후들은 오패의 죄인이며, 오늘날의 대부들은 오늘날의 제후들의 죄인이다. 천자(天子)가 제후(諸侯)에게 가는 것을 순수(巡狩)라고 하고, 제후가 천하를 찾아와 뵙는 것을 술직(述職)이라고 한다. 봄에는 밭가는 것을 살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가을에는 걷이 하는 것을 살펴 부족한 것을 도와준다. ... 오패 중에 환공(桓公)이 가장 성대하였는데, 규구(葵丘)의 회동에서 제후들은 희생을 묶어놓고 그 위에 맹약의 문서를 올려놓은 채 피를 마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명했다. ①첫째, 불효자는 죽이고, 후계자로 세운 아들을 바꾸지 않으며, 첩(妾)을 처(妻)로 삼지 않는다. ②둘째, 현자를 높이고, 인재를 육성하되 덕이 있는 자를 표창한다. ③셋째,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손님과 나그네를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 ④넷째, 같은 관직에 대를 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여러 관직을 겸하게 하지 않으며, 인재를 등용할 때는 자리에 맞는 사람을 쓰고, 대부를 마음대로 죽이지 않는다. ⑤다섯째, 둑을 굽게 쌓지 말고, 곡식 구매를 막지 말며, 영토를 봉해놓고 고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 '우리 동맹인들은 오늘 이후로 사이좋게 지낸다.' 그런데 오늘날 제후들은 모두 이 다섯 가지 금령을 범하고 있으니, '오늘날의 제후들은 오패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임금의 악을 키우는 것은 그 죄가 상대적으로 작고, 임금을 악과 만나게 하는 것은 그 죄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들은 모두 임금을 악과 만나게 만드니, '오늘날의 대부들은 오늘날의 제후들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